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159

JCCT 2018-8-19

## 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

### Literary Therapeutics of Brownian Motion in Hwang Jin-yi's Sijo

박인과\*

Park In-Kwa\*

**요약** 본 연구는 인간의 서사의 브라운운동을 생리학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서 향후 문학치료의 시행에 활용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황진이 시조는 처음에 그리움을 베어내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그 그리움을 접어 보관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움을 펼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접고 펼침의 운동으로 이 시조는 진동한다. 이것이 시조의 브라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끝없는 사랑을 완성한다. 이러한 문학적 감정의 브라운운동을 활용한다면, 문학치료가 인체생리학적인 치유의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황진이, 고시조, 감정의 입자들, 브라운운동, 감정 꼬매기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Brownian motion of human narrative in physiolog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se functions appear in literary works and to apply them to the practice of literary therapy in the future. Hwang Jin-yi's sijo is the first to cut off the longing. Then, It fold that longing and keep it. Finally, It is to unfold those longing. In this folded and unfolded movement, this Sijo is vibrated. This is the Brownian motion of Sijo. In this, the Sijo completes endless love. Using the Brownian motion of these literary feelings, it seems that literary therapy can form conditions of human physiological healing.

**Key words** : Hwang Jin-yi, Gosijo, Particles of emotion, Brownian motion, Sewing of emotion

#### I. 서론

브라운(R. Brown, 1773-1858)은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로서 '브라운운동(Brownian motion)'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론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A. Einstein, 1879-1955)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브라운운동은 꽃가루 등의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인간의 감정의 입자, 혹은 서사의 입자도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브라운운동을 하며 인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으로 탐색된다. 문학치료는 문학적 서사의 꼬이고 접히고 펼쳐지며 이동하는, 문학적 서사의 역동성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창작적 서사가 접히고 펼쳐지며, 비규칙적으로 회전을 수행하며 자신의 목표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서사의 운동을 감정의 브라운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자: 2018년 6월 3일, 수정완료일자: 2018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8월 2일

Received: June 3, 2018 / Revised: July 18, 2018

Accepted: August 2, 2018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Korea

운운동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브라운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인체의 신호가 발생하고, 문학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서사의 브라운운동에 의하여 인체에서 어떠한 신호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양한 감정이 생산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 서사의 브라운운동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의해 서사의 브라운운동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서사가 없으면 치유적인 신호 전달이나 기억, 운동 등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사의 브라운운동은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영향중의 하나가 인간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있다. 인간의 창작 행위는 인체의 서사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간의 서사의 브라운운동을 생리학적 관점으로 서술하며, 이러한 기능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서 향후 문학치료의 시행에 활용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서사의 브라운운동의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고시조의 초장에서 브라운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중장과 종장에서 브라운운동을 연속시키고 목적을 이루는 구조를 탐색할 것이다. 이때는 문장의 서사를 브라운운동의 주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경생리학적 논의들’[1-3, 5]을 기반으로 하였고, 본 연구자의 ‘논문들’[6-33]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문학적 서사의 동적인 부분들을 치유의 선상에 올려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학의 인체생리학적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 II. 감정의 브라운 운동

인간은 인체 내에서 특별한 목적을 향한 감정의 브라운운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작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 의해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거나 카타르시스가 진행된다면 감정의 브라운운동이 작동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감정의 브라운운동은 문학적 서사를 통하여 시행되는 뇌의 생리학적 기능에 의한 것으로써, 치유의 서사를 유발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 古時調大全』(김홍규 외 편저, 2012: 306)에 나타난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4]이다. 어떻게 브라운운동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굵이굽이 퍼리라

### 1. 초장, 그리움의 절편(切片)

황진이는 시조 문장을 맛깔나게 버무린다. 이 문장의 요리를 위해 황진이는 도마의 역할을 하는 초장에서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라고 운을 댄다. 여기서 ‘동짓달 지나긴 밤’은 그리움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밤은 그리움으로써 작자의 불면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허리를 베어 내어’라며 이 ‘밤’을 베어낸다는 것이다. 베어낸다는 것은 베어내어 보관하겠다는 황진이의 의지이며, 이는 불면증의 삭제제를 의미한다. 즉,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장은 ‘밤’을 베어 낸 그리움의 절편(切片)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리움의 절편에 수면이라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이다.

### 2. 중장, 감정 꼬매기

중장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이다. 이는 초장의 절편을 이불과 함께 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서리서리’ 넣는다는 중장의 행위에 의해서 이 그리움의 절편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장은 겨울을 나타내는 시어 ‘동짓달’이 등장하고, 중장에는 봄을 나타내는 시어 ‘춘풍’이 등장한다. 그러면 초장에서 중장에 이르는 여정은 ‘동짓달’ → ‘춘풍’의 기간으로서 겨울에서 봄까지의 수많은 날들을 수식하는 것이다. ‘동짓달’이라는 재료와 ‘춘풍’이라는 재료로 수많은 날들을 버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초장의 ‘동짓달 지나긴 밤’은 하룻밤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수많은 날들의 ‘밤’이다. 시적 강조의 의미로 확장되면 수많은 세월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조에 의하면, 황진이는 그리움을 소진시키지 않고 간직하며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서리서리 넣었다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움의 절편들을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는다는 것이다. 즉, 이 표현은 겨울과 봄까지 이어지는 많은 날들의 그리움의 서사들을 춘풍 이불에 꿰매어 놓는다는 것이다. 꿰매어 놓지 않고는 그 많은 그리움의 서사들을 춘풍 이불에 다 쌓아둘 수는 없을 것이다. ‘춘풍’은 바람이므로 이 바람에 의해 그리움들이 날아가 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종장의 ‘구비구비 퍼리라’의 행위는 종장에서 꿰매어 이불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시행될 수 없다. 그래서 ‘서리서리’ 넣는 것은 꿰매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써 그리움의 절편에 의해 그리움의 이불이 탄생한다.

이러한 황진이의 종장의 행위는 ‘동짓달 기나긴 밤’의 술한 그리움들을 꿰매어 ‘춘풍’으로 서리서리 접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접는 행위는 펼치는 행위의 선행조건이다. 이불을 접어서 개는 행위는 나중에 ‘어른님’ 오실 때에 펼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써 황진이는 시조에서 이불의 접고 펼침의 행위를 추동한다. 이는 브라운운동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3. 종장, 끝없는 사랑

종장은 이 시의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퍼리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종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 바로 ‘구비구비 퍼리라’에 의해서다. 이 ‘구비구비’는 그리움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황진이는 자신의 모든 그리움을 표상한 것이며, 이는 또한 한순간에 없어질 그리움이 아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인 종장은 영구히 ‘구비구비’ 이어질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 장소는 ‘님’의 품에서다. 이것이 치유의 문법이다. 이 시조를 반복해서 감상하면 이러한 치유의 기제가 끊임없이 증폭된다.

## III. 시조 3장의 목표지점

황진이가 읊고 있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시조 3장의 목표 지점은 ‘어른님’의 품이다. ‘어른님’과 만나는 밤에 끝없는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림고

안타까운 시간의 기나긴 밤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 시간들을 모두 모아서 영원히 님과 함께 하겠다는 시적 목표 지점인 것이다. 이 ‘님의 품에서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치유의 기제이다. 황진이가 목표하는 문학치료의 지점이다. 그리운 님이 다시 오실지 못 오실지는 몰라도 오신다는 그리움에의 희망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지탱한다. 이것이 문학의 기능이며, 문학치료의 효과이다.

## IV. 논의 및 제안

이 시조에 의해서 인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며 일어나는 감정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자신이 갈구하는 사랑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없는 여정을 수행하는 시조 서사의 브라운운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조 서사의 브라운운동은 3개의 장이 ‘절편’ → ‘접힘’ → ‘펼침’ 등의 행동 양식으로 서로 끊어지고 섞이고 꼬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독자의 가슴에 설렘을 주는 행위으로써 문학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감정의 브라운운동은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감정의 치유 현상이다. 그것이 누구나 이 시조를 감상하며 감탄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제 제 4차 산업의 영토에 있다. 이 시기는 모든 학문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방향으로의 길을 트고 인간의 삶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모든 학문들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학문들 각자가 홀로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학문들을 살피고 주변의 중요한 이론과 현실적 적용 사례들이 자신의 학문과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 연구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며, 인류가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찾아주게 될 것이다.

## V. 결 론

황진이의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브라운운동의 서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진이는 사랑을 위해 시조를 창작하는 것이다.

그녀의 시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사의 행위 자체가 물질 입자의 브라운운동을 닮아있다는 것이다. 초

장은 하나의 그리움의 절편이 되고, 중장은 그 서사들의 접힘의 행위를 수행하고, 종장은 다시 펼침의 운동을 시행한다. 시조의 서사는 이러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감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치유의 행위를 증폭시킨다.

그런 결과 그리움과 불면증이 유보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현재 여기에서의 삶이 한층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학치료는 감정의 브라운운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치료를 시행할 때도 서사의 운동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욱 더 치유적인 문학치료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Bernard J. Baars & Nicole M.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B. G. Kang trans (Paju: Kyobo Books, 2010).
- [2] Bryan Kolb & Ian Q. Whishaw,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eoul: Sigma Press, 2012)
- [3] Geoffrey M. Cooper & Robert E. Hausman,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Seoul: World Science, 2011).
- [4] Kim Heung-gyu et al. compiled, *Perfection of Ancient Korean Sijo* (Seoul: National Cultural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2012).
- [5] Min Hye-seon et al. *Human physiology* (Paju: Yangseowon, 2011).
- [6]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 no. 1 (February 2015): 37-64.
- [7] Park In-Kwa, "A study on Transfer-Literary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therapy* 5, no. 1 (March 2015): 85-106.
- [8] Park In-Kwa,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 no. 2 (May 2015): 21-36.
- [9] Park In-Kwa,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 no. 1 (February 2016): 13-33.
- [10] Park In-Kwa, (August 2016).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1] Park In-Kwa,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 no. 4 (November 2016): 31-40.
- [12] Park In-Kwa,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4, no. 4 (December 2016): 45-50.
- [13] Park In-Kwa,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 no. 1 (March 2017): 26-31.
- [14] Park In-Kwa,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 no. 2 (June 2017): 9-18.
- [15] Park In-Kwa,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ated Sijo which is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 no. 3 (August 2017): 7-19.
- [16]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 no. 8 (August 2017): 225-230
- [17] Park In-Kwa, "A Study of the Sijo's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concentrating on the Twelfth Sound Ste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 no. 4 (August 2017): 403-428.
- [18] Park In-Kwa, "Therapeutic Functor that calls semantic Argument -Focusing on the compound nouns in Sijo,"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 no. 3 (September 2017): 35-39.
- [19] Park In-Kwa,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Codes of Sijo Fused by Trans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 no. 10 (October 2017): 167-172
- [20] Park In-Kwa,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Codes Encoded by Auditory Stimuli Transferred from Cho Ji-Hoon's Poem If I Blow a Flut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 no. 5 (October 2017): 467-482.
- [21] Park In-Kwa, "The Semantic Structure of Synaptic Activation, Likened to Cho Ji-Hoon's Poem 'Li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 on Culture Technology 3, no. 4 (November 2017): 21-26.
- [22] Park In-Kwa, "A Study on the Encoding of Literature Therapy in the Third Line of the Poem 'Morning' Written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 no. 4 (November 2017): 123-129.
- [23] Park In-Kwa, "The Layer of Emotion that Makes up the Poem "Falling Flowers(落花)" by Cho Ji-Ho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 no. 4 (December 2017): 1-9.
- [24] Park In-Kwa, "Encoding of sentences appearing in Cho Ji-Hoon's poem "White nigh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 no. 4 (December 2017): 31-37.
- [25] Park In-Kwa,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Structures Encoded to Genetic Cipher Location: Focusing on the Sadness Motif that are Carved on the Cho Ji-Hoon's Poem "Short Melodies of Grass Lea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 6 (December 2017): 1269-1284.
- [26] Park In-Kwa, "The Structure of Healing in the Functor and Semantic Arguments Appearing in the Poem "Bellflower Flower"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 no. 1 (February 2018): 275-278.
- [27] Park In-Kwa, "The Argument Structure of Healing Encoded at the Functor Location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Wo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 no. 1 (February 2018): 989-998.
- [28] Park In-Kwa, "The Amplification of the Morse Codes, which Cho Ji-Hoon's Poem Silent Night 1 Leaves in the Human Bo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 no. 1 (March 2018): 42-49.
- [29] Park In-Kwa, "Mechanism of Tension and Condensation from the Others into the Poetic Narrator - Focusing on Han Yong-woon's Poem I do not Know,"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 no. 2 (April 2018): 149-162.
- [30] Park In-Kwa, "The Sijo Strained by the Preceding Line: Focusing on the Works of Bang-yeon Wa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 no. 2 (May 2018): 149-153.
- [31] Park In-Kwa, "Neurophysiology of Amplification and Mutation of Poetic Sense: Focusing on Hwang Jin-yi's Sijo "I do not untrustworth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 no. 2 (June 2018): 100-106.
- [32] Park In-Kwa, "The Neurophysiology of Poetic Feelings' Partial Pressure and Diffusion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Dense Fore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 no. 6 (June 2018): 147-154.
- [33] Park In-Kwa, "Hwang Jin-yi's Neurophysiology of Tension and Relaxation: Focusing on Cheongsanli Byeoggyesu-y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 no. 3 (June 2018): 1329-1342.